

보도시점 2025. 10. 1.(수) 12:00 배포 2025. 10. 1.(수) 8:30

「아동·청소년 삶의 질 2025」 보고서 발간

- 8개 영역 62개 지표를 통해 아동·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시 -

담당 부서	국가통계연구원 정책통계연구팀	책임자	팀 장	박시내 (042-366-7130)
		담당자	사무관	심수진 (044-366-7133)

「아동·청소년 삶의 질 2025」 개요

-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에서는 아동·청소년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「아동·청소년 삶의 질 2025」 지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.
 - 생애주기 단계 중 아동·청소년*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보고서로, 2022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이다.
 - * 아동·청소년은 만 0~18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나,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음
 -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, 건강, 학습·역량 등 8개 영역의 62개 지표*로 구성되며, 이를 통해 아동·청소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준다.
 - *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별 출처가 다양하고, 작성 연도 및 주기가 상이함
- 동 보고서는 아동·청소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증거 기반의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 - 예방적이고,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동·청소년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.
 - 아동·청소년기의 삶의 질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을 통한 개선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가 크다.
 -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아동·청소년의 권리 옹호와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.
- 올해 보고서에서는 아동·청소년의 디지털 웰빙과 정신건강 관련된 주제의 심층분석 논문을 포함한다.
 - (디지털 웰빙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연주 수석연구원) 아동·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현황을 접근성, 기회, 위험 세 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.
 - (정신건강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) 아동·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및 변화 추이를 다양한 조사 결과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.
- 김 진 원장은 “동 보고서의 아동·청소년 삶의 질 측정 결과가 아동·청소년 삶과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,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아이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- (영역 구성) 아동·청소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는 거시적 환경을 반영하는 사회적 배경과 미시적 환경과 삶의 질을 반영하는 8개 영역으로 구성



- (지표체계) 8개 영역 62개 지표, 기존 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영역별 지표 구성

영역	지표명	대상연령	영역	지표명	대상연령
사회적 배경 (12개)	아동·청소년 추계인구	0~18세	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(6개)	물질적 결핍지수	0~17세
	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인구 비율	0~18세		가정경제 어려움에 대한 걱정	9~17세
	10만명당 사망자수	0~18세		상대적 빈곤율	0~18세
	맞벌이 가구 아동 비율	0~17세		거주지역 편의성	0~17세
	한부모 가구 아동 비율	0~18세		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거주 비율	0~18세
	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	0~5세		초미세먼지농도	-
	국공립보육시설 비율	0~5세	학습· 역량 (6개)	학습시간	10세 ~ 고3
	학급당 학생수	유,초,중,고		사교육 참여율	초, 중, 고
	장애아동 통합교육 비율	유,초,중,고		주관적 학업성취 정도	13~18세
	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비율	0~18세		학교생활 만족도	9~18세
	보호대상아동 발생률	0~17세		학업중단율	초, 중, 고
	시설가정위탁보호아동 수	0~19세		영유아 언어발달 정도	0~5세
건강 (10개)	스트레스 인지율	중, 고	여가· 활동· 참여 (6개)	평일 여가시간	초4~고3
	자살률	0~18세		방과 후 활동	9~17세
	범불안장애 경험률	중, 고		여가생활 만족도	13~19세
	저체중 출생아 비율	0세		동아리 참여율	9~18세
	비만율	초, 중, 고		사회문제 관심정도	13~18세
	주관적 건강 인지율	중, 고		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	초4~고3
	수면시간	중, 고	안전· 위험 행동 (10개)	아동학대 피해 경험률	0~17세
	예방접종률	1~6세		방과 후 방치 정도	0~12세
	영양결핍률	1~18세		또래폭력 피해 경험률	초4~고3
	규칙적 운동 실천율	중, 고		교통사고 사망률	0~20세
	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	0~5세		강력범죄 피해율	0~20세
	가족과의 식사 빈도	9~18세		흡연율	중, 고
관계 (8개)	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	초4~고3		음주율	중, 고
	가족관계 만족도	9~18세		소년범죄 발생률	14~18세
	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	3~8세		가출 경험률	초4~고3
	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	13~18세		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	3~19세
	친구관계 만족도	9~18세	주관적 웰빙 (4개)	삶의 만족도	9~18세
	사회신뢰도	13~18세		긍정정서	9~18세
				부정정서	9~18세
				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	9~18세

「아동·청소년 삶의 질 2025」 주요 결과

1. 사회적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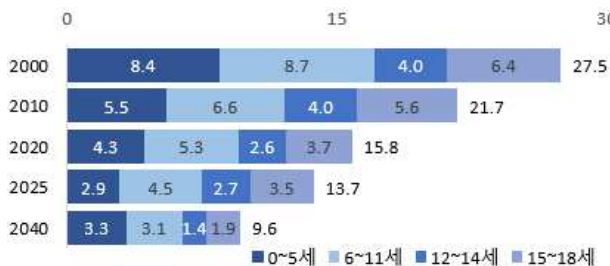
아동·청소년(0~18세) 인구는 '25년 전체 인구의 13.7%로 지속적으로 감소

□ 아동·청소년(0~18세) 인구는 '25년 7,08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.7%임(보고서 25쪽)

○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'25년 6.3%임

< 아동·청소년 인구 비율 (2000~2040) 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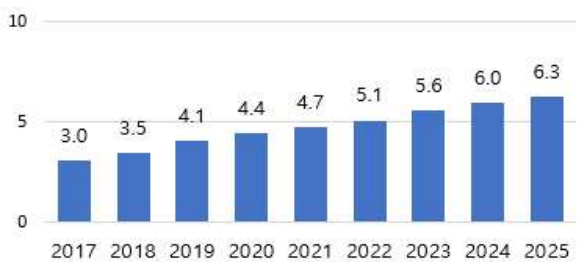
주: 1) (0~18세 대상) 외국인 포함 인구임

2)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고, 2023년부터는 추계인구임

출처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

<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인구 비율 (2017~2025) >

(단위: %)



주: 1) 이주배경인구 = 귀화한 내국인+이민자 2세 내국인+외국인

2) 2022년까지는 확정 인구이고, 2023년부터는 추계인구임

출처: 통계청, 「내외국인 인구추계」

'24년 아동·청소년 가구의 한부모 비율은 7.7%이고, 맞벌이 가구는 58.5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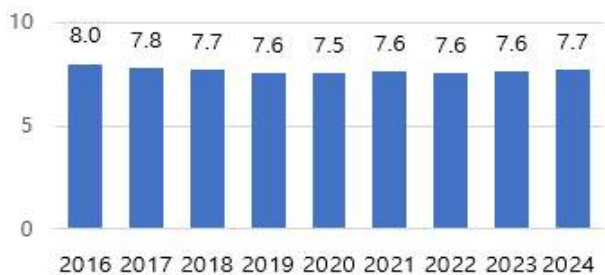
□ 아동·청소년(0~18세) 가구의 한부모 양육 비율은 '24년 7.7%로 '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, 이 중 69%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고 있음(보고서 26쪽)

□ 아동·청소년(0~17세)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'16년 48.5%에서 '24년 58.5%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

○ '24년 막내자녀 연령 기준 6세 이하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3.2%이며, 7~12세 59.8%, 13~17세는 64.1%로 막내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승

< 한부모 양육 비율 (2016~2024) 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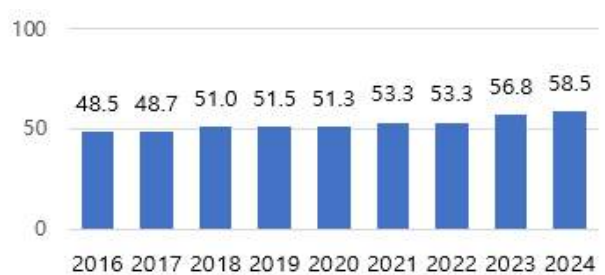


주: 한부모 가구는 막내자녀 연령이 18세 이하인 가구의 부 또는 모가 미혼, 이혼, 사별인 경우임

출처: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

< 아동 가구의 맞벌이 비율 (2016~2024) >

(단위: %)



주: 막내자녀 연령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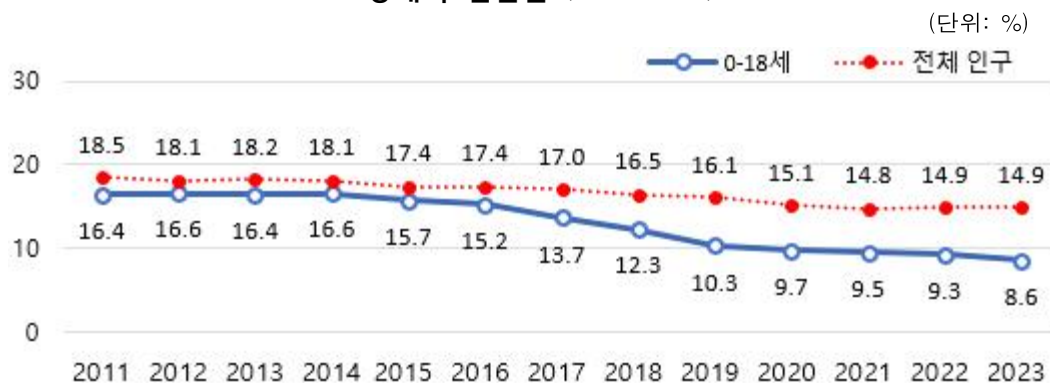
출처: 통계청, 「지역별고용조사」

2.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

아동·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'23년 8.6%로, OECD 37개국 중 12위임

- 상대적 빈곤율^(0~18세)은 '11년 16.4%에서 '23년 8.6%로 감소 추세임(보고서 35쪽)
- 아동·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'23년 14.9%)보다 6.3%p 낮으며,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

< 상대적 빈곤율 (2011~2023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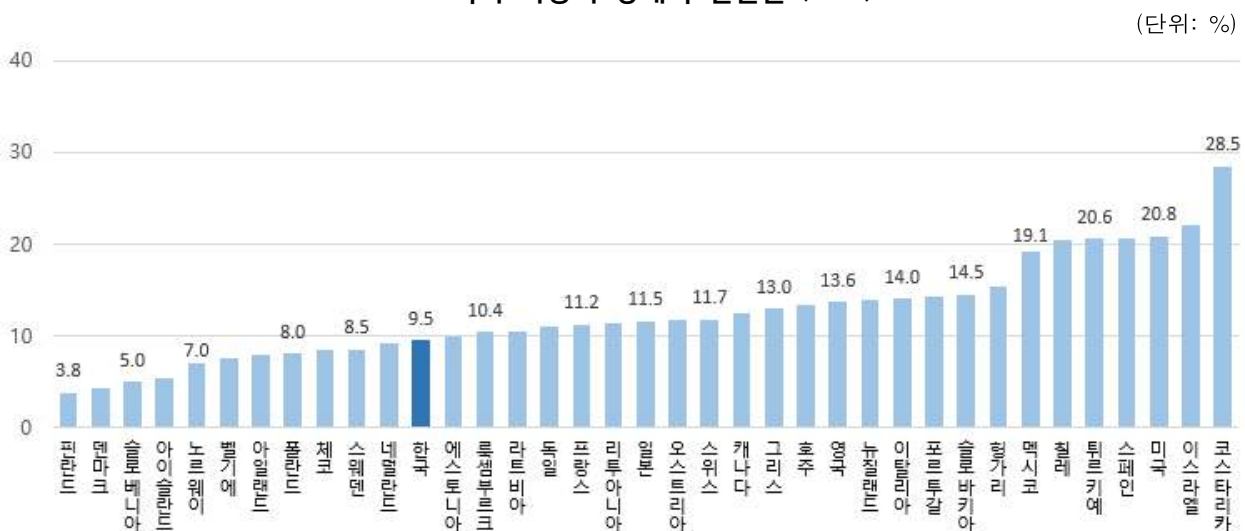
주: 1) (0~18세 대상) 상대적 빈곤선은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중위 50%임

2) 소득 기준연도임 (즉, 2023년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임)

출처: 통계청, 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 각 연도 원자료 분석

- 우리나라 아동·청소년^(0~17세)의 상대적 빈곤율('22년 기준 9.5%)은 OECD 37개국 중 12위이며, 핀란드가 3.8%로 가장 낮음

< OECD 국가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(2022) >



주: 1) (0~17세 대상) 2022년 기준이며, 2017년(아이슬란드), 2020년(호주), 2021년(독일, 일본) 수치도 포함됨.

출처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(2025.8.)

주거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, 거주지역 편의성은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 존재

- 아동·청소년^(0~18세)이 있는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'23년 22%로 전체 일반가구(3.6%)보다 낮은 편임 (보고서 38쪽)
- '22년(1.9%)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'17년(4.4%) 이후 감소 추세임

<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(2017~2023) 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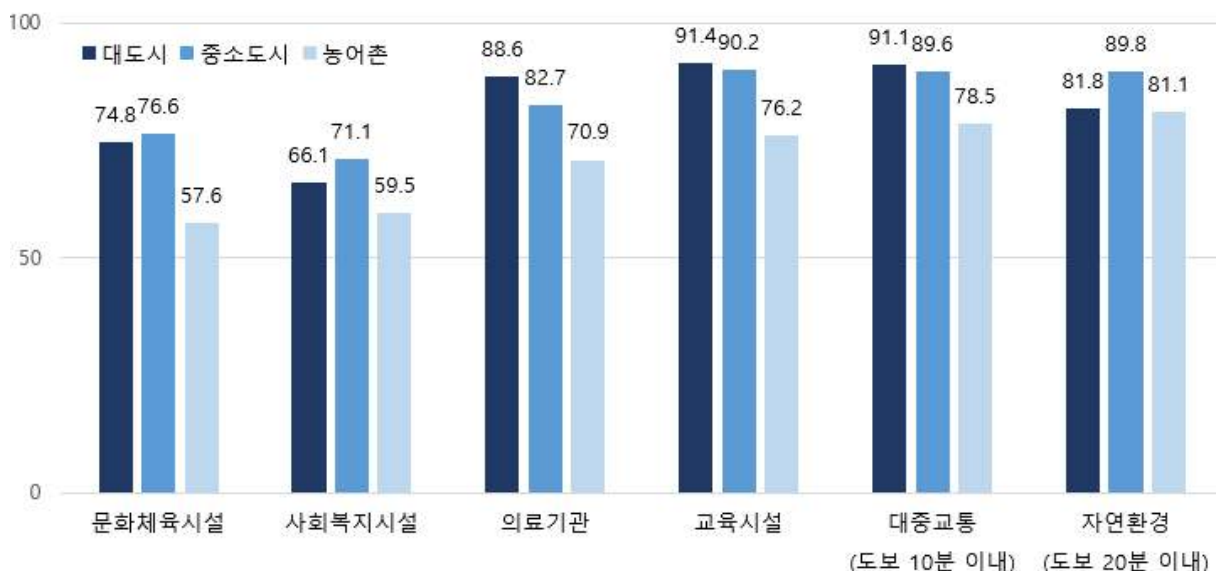
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전체 일반가구	5.9	5.7	5.3	4.6	4.5	3.9	3.6
아동·청소년 거주 가구	4.4	4.1	3.4	2.7	2.4	1.9	2.2

주: 아동·청소년 거주 가구는 가구원 중 0~18세 아동이 포함된 가구임
출처: 국토교통부, 「주거실태조사」 각 연도 원자료 분석

- 거주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인 문화체육시설, 의료기관, 교육시설,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차이가 큼 (보고서 36~37쪽)
- 의료기관이나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편의시설 접근성이 비슷한 수준임
- 농어촌 지역은 편의시설 접근성(자연환경 제외)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10%p 이상 낮으며, 특히 문화체육시설은 17%p 이상 낮음

< 지역규모별 거주지역 편의성 (2023) >

(단위: %)



주: (0~17세 대상) 아동·청소년의 거주지역 내에 이용가능한 유형별 편의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(주양육자 응답)
출처: 보건복지부, 「아동종합실태조사」

3. 건강

스트레스 인지율과 범불안장애 경험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추세임

- (스트레스 인지율)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'23년 37.3%에서 '24년 42.3%로 5.0%p 증가함(보고서 41쪽)
- 스트레스 인지율은 '20년 34.2%로 '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
- 성별로 보면 '24년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9.9%, 남학생은 35.2%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.7%p 더 높음

< 스트레스 인지율 (2005~2024) >

(단위: %)



주: (중·고등학생 대상)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해 '대단히 많이' 또는 '많이'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임
출처: 질병관리청, 「청소년건강행태조사」

- (범불안장애 경험률)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'23년 12.6%에서 '24년 14.1%로 1.5%p 증가함(보고서 44쪽)

- 성별로 보면 남학생(10.3%)에 비해 여학생(18.0%)이 7.7%p 더 높음

< 범불안장애 경험률 (2020~2024) >

(단위: %)



주: (중·고등학생 대상) 범불안장애 선별도구 총점 21점 중 10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임
출처: 질병관리청, 「청소년건강행태조사」

비만율은 '21년 19.0% → '24년 18.3%로 감소,
10~18세의 영양결핍률은 '22년 17.8% → '23년 22.8%로 증가

- (비만율)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증가한('19년 15.1% → '21년 19.0%) 초·중·고 학생들의 비만율은 소폭으로 감소하여 '24년 18.3% 임 (보고서 46쪽)
- 남학생의 비만율은 '21년 22.8%에서 '24년 21.5%로 1.3%p 감소한 반면, 여학생의 비만율은 같은 기간 15.0%에서 14.9%로 비슷한 수준임
-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'21년 이후 18% 수준을 유지한 반면, 중학생은 '22년 21.7%에서 '24년 16.7%로 5.0%p 감소하여 초등학생보다 낮음

<성별 비만율 (2016~2024) >

(단위: %)



< 학교급별 비만율 (2016~2024) >

(단위: %)



주: 1) (초·중·고 학생 대상) 체질량지수(BMI) = 체중(kg) / [신장(m)]², BMI가 95백분위수 이상인 비율임

2)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하며,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은 건강검사 미실시

출처: 교육부, 「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」

- (영양결핍률) 코로나19 시기 증가했던 영양결핍률은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, '22년 대비 '23년 증가함 (보고서 50쪽)

- (1~9세) '22년 3.2%에서 '23년 4.8%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
- (10~18세) '22년 17.8%에서 '23년 22.8%로 다시 증가

< 영양결핍률 (2001~2023) >

(단위: %)



주: (1~18세 대상)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% 미만인면서, 칼슘, 철, 비타민A,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평균 필요량 미만인 비율임
출처: 질병관리청, 「국민건강영양조사」

4. 학습 · 역량

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감소하고 있으나,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 추세

- (학습시간) 초·중·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'24년 기준 초등학생은 5시간 5분, 중학생은 5시간 45분, 고등학생은 6시간 37분임(보고서 53쪽)
- 학습시간의 감소는 공교육인 '학교학습' 시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, '학교활동 외 학습' 시간은 비슷하거나 증가 추세임
- 고등학생의 '학교 외 학습' 시간은 '14년 대비 1시간 가량 증가('14년 2:16 → '24년 3:13)

< 학습시간 (2014~2024) >

(단위: 시간:분)



주: 1) (10세~고등학생 대상) 학교급별에서 수학여부는 '재학'인 경우에만 해당됨

2) 주행동을 기준으로 작성한 요일 평균시간임

출처: 통계청, 「생활시간조사」

- (사교육 참여율) '24년 80.0%로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이전 사교육 참여율을 상회함(보고서 54쪽)

-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87.7%, 중학생 78.0%, 고등학생 67.3%로,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음

<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(2007~2024) >

(단위: %)



주: (초·중·고 학생 대상) 유료로 일반교과목, 논술, 예체능, 교양, 취미, 취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

출처: 통계청·교육부, 「초중고사교육비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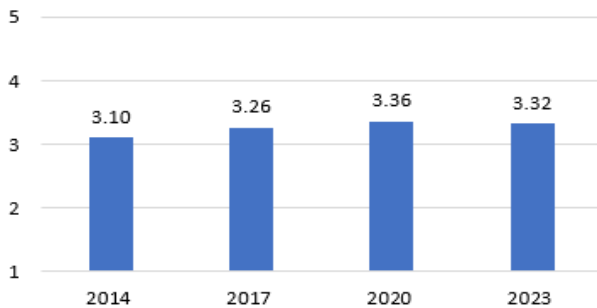
학생들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상승 추세이나, 학교생활 만족도는 감소

□ (학업성취도) 중·고등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'14년 3.10점에서 '23년 3.32점으로 상승(보고서 55쪽)

- 여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'23년 3.36점으로 남자(3.29점)보다 높음
- 대도시 거주 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3.37점, 중소도시 거주 학생은 3.32점인 반면, 농어촌 거주 학생은 3.22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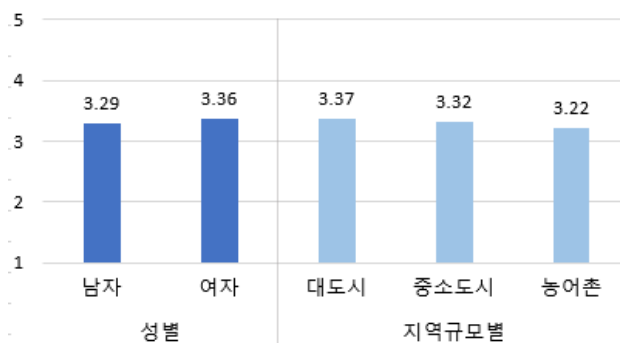
< 주관적 학업성취도 (2014~2023) >

(단위: 점/5점)



< 성 및 지역별 주관적 학업성취도 (2023) >

(단위: 점/5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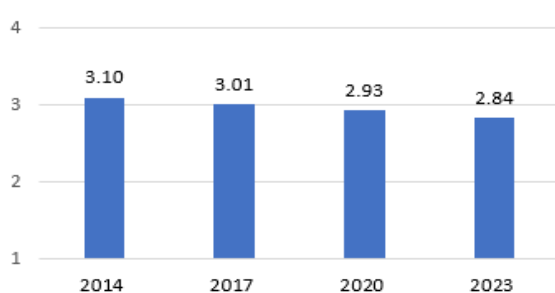
주: (13~18세 대상) '현재 학업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'에 대한 5점 척도(매우 못한다~매우 우수하다)의 평균점수임
출처: 여성가족부, 「청소년종합실태조사」

□ (학교생활 만족도) '14년 3.10점에서 '23년 2.84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(보고서 56쪽)

- '23년 기준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2.84점, 2.85점으로 비슷한 수준
- 대도시 거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.87점, 중소도시 거주 학생은 2.84점인 반면, 농어촌 거주 학생은 2.76점으로 낮은 편임

< 학교생활 만족도 (2014~2023) >

(단위: 점/4점)



< 성 및 지역별 학교생활 만족도 (2023) >

(단위: 점/4점)



주: (9~18세 대상) '현재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'에 대한 4점 척도(전혀 그렇지 않다 ~ 매우 그렇다)의 평균점수임
출처: 여성가족부, 「청소년종합실태조사」

5. 여가 · 활동 ·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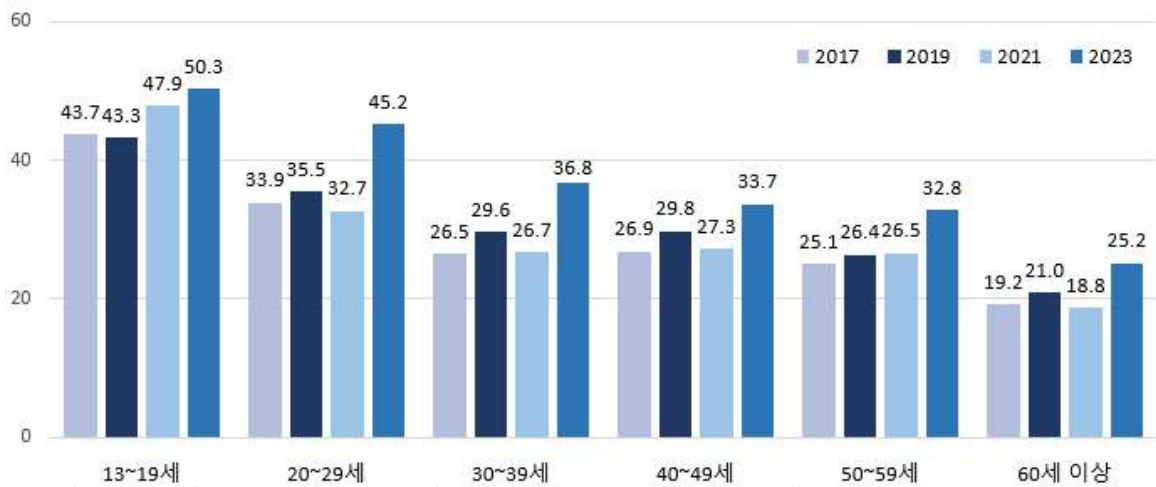
‘17년 이후 여가생활 만족도는 증가 추세이며, 동아리 참여율은 감소 추세

□ (여가생활 만족도) 아동·청소년^(13~19세)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‘17년 43.7%에서 ‘23년 50.3%로 증가 추세임(보고서 64쪽)

○ 아동·청소년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며, 20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시기 여가생활 만족도가 감소한 것과는 차이를 보임

< 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 (2017~2023) >

(단위: %)



주: (13세 이상 대상)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‘매우 만족’ 또는 ‘약간 만족’으로 응답한 비율임
출처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

□ (동아리 참여율) 모든 유형에서 ‘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(보고서 65쪽)

○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참여율은 ‘17년 17.2%에서 ‘23년 6.9%로 감소, 인터넷 단체나 동아리는 동 기간 10.4%에서 2.0%로, 기타 단체나 동아리는 15.1%에서 6.3%로 감소함

< 동아리 참여율 (2017, 2020, 2023) >

(단위: %)

	청소년 단체나 동아리	인터넷 단체나 동아리	기타 단체나 동아리
2017	17.2	10.4	15.1
2020	10.9	5.4	8.5
2023	6.9	2.0	6.3

주: (9~18세 대상) ‘청소년 단체나 동아리’, ‘인터넷 단체나 동아리’, ‘기타 단체나 동아리’ 중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
출처: 여성가족부, 「청소년종합실태조사」

6. 안전 · 위험행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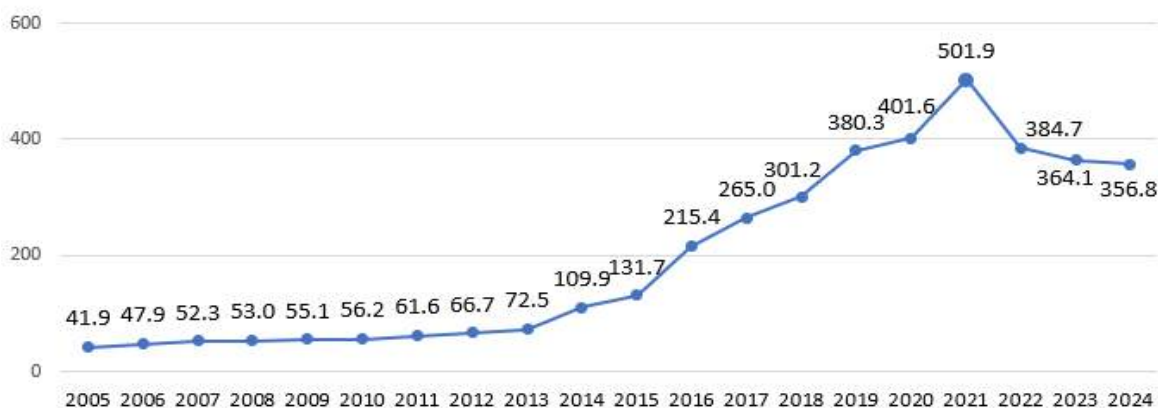
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'21년 501.9건에서 '24년 356.8건으로 감소,
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'22년 16.3%에서 '24년 22.6%로 증가

- (아동학대 피해 경험률) 꾸준한 증가 추세로 '21년 10만 명당 501.9건으로 가장 높았으나, 이후 감소하여 '24년에는 356.8건임(보고서 69쪽)

※ 아동학대 피해는 신고건수로 집계하여, '14년 관련 법제정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

<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(2005~2024) >

(단위: 건/10만 명)



주: 1) (0~17세 대상) 아동학대사건건수는 최종 학대 판단건수임

2) 경험률 = (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수÷추계인구)×100,000

출처: 보건복지부, 「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」;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

- (또래폭력 피해 경험률) '22년 16.3%에서 '24년 22.6%로 6.3%p 증가(보고서 71쪽)

○ 피해유형별로는 '24년 언어폭력이 16.0%로 가장 많으며('22년 대비 +5.4%p),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도 9.1%로 높은 수준임

○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경험률이 '24년 31.0%로 높게 나타남

* 학교급별 피해 경험률('22년 → '24년): 초등학생(22.1% → 31.0%),

중학생(18.1% → 24.4%), 고등학생(8.5% → 11.8%)

< 피해유형별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 (2022~2024) >

(단위: %)

	피해 경험률	학교 안과 밖							온라인 공간				
		언어 폭력	신체 폭력	갈취	위협	따돌림	심부름	감금	언어 폭력	갈취	위협	따돌림	망신
2022	16.3	10.6	6.0	2.1	2.8	1.6	0.5	-	7.3	1.4	1.7	1.0	-
2024	22.6	16.0	7.5	2.3	3.5	2.6	1.0	0.9	9.1	2.4	2.1	1.1	2.2

주: 1) (초등학교 4학년~고등학생 대상) 전체 경험률은 제시된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임

2) 유형별 피해경험은 중복응답을 집계한 것이며, 감금과 망신은 2024년 조사연도에서 추가된 항목임

출처: 여성가족부, 「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」

음주율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

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

- (흡연율·음주율) 중·고등학생의 흡연율은 '19년 7.3%에서 '24년 4.5%로, 음주율은 '19년 15.0%에서 '24년 9.7%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(보고서 74~75쪽)

-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음

* '24년 흡연률: 남자 5.8%, 여자 3.2%, '24년 음주율: 남자 11.8%, 여자 7.5%

< 흡연율 및 음주율 (2019~2024) >

(단위: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흡연율	7.3	4.8	5.2	5.4	5.1	4.5
음주율	15.0	10.7	10.7	13.0	11.1	9.7

주: 1) 흡연율: (중·고등학생 대상) 최근 30일 동안 한 번이라도 흡연(일반담배, 전자담배 포함) 했다고 응답한 비율임

2) 음주율: (중·고등학생 대상)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

출처: 질병관리청, 「청소년건강행태조사」

- (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) 코로나19 시기 증가한 이후 유치원생은 감소 하였으나, 초등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(보고서 78쪽)

- (유치원생) '19년 21.4%에서 '21년 28.5%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여 '24년 23.8%임

- (초등학생) '19년 24.4%에서 '21년 31.6%, '24년 37.3%로 지속적으로 증가

<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 (2016~2024) >

(단위: %)



주: 1) (3세~고등학생 대상)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

2) 3~9세는 보호자가 응답한 내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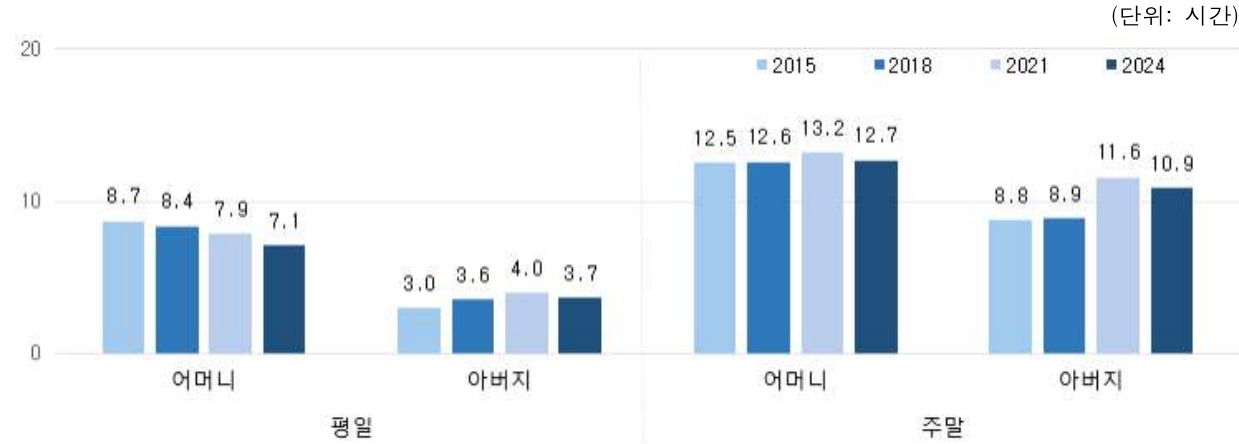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」

7. 관계

아동이 주말에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'15년 대비 '24년에 두 시간 이상 증가

- (부모와 보내는 시간) 아동^(0~5세)이 평일에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'15년 이후 감소, 아버지와의 시간은 '15년 3.0시간에서 '24년 3.7시간으로 증가^(보고서 81쪽)
- (주말)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'24년 12.7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, 아버지와의 시간은 '15년 8.8시간에서 '24년 10.9시간으로 두 시간 이상 증가
 - * 어머니와 함께 : 평일('15년 8.7시간→ '24년 7.1시간), 주말('15년 12.5시간→ '24년 12.7시간)
 - * 아버지와 함께 : 평일('15년 3.0시간→ '24년 3.7시간), 주말('15년 8.8시간→ '24년 10.9시간)

<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(2015~2024) >



주: (0~5세 대상) 아동이 어제(평일)와 지난 주말 하루 중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으로 주양육자가 응답함
출처: 보건복지부, 「전국보육실태조사」

- (가족과 식사빈도) 주 4회 이상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·청소년^(9~18세)은 '17년 63.0%에서 '20년 69.4%로 증가한 이후 '23년 68.3%로 감소함^(보고서 82쪽)
- (9~12세) '17년 79.9%에서 '23년 80.2%로 비슷한 수준
- (13~18세) '17년 53.6%에서 '23년 60.2%로 6.6%p 증가

< 가족과의 식사빈도 (2017, 2020, 2023) 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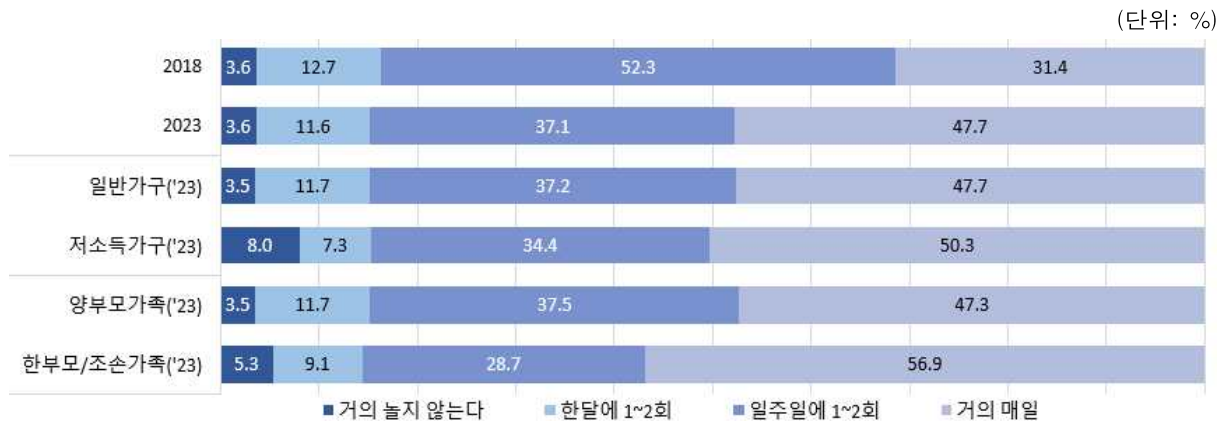
	2017	2020	2023
주 4회 이상 저녁식사	63.0	69.4	68.3
(9~12세)	79.9	75.6	80.2
(13~18세)	53.6	65.2	60.2

주: (9~18세 대상) 최근 1년간 부모님(또는 양육자)과 저녁 식사를 주 4회 이상 함께한다고 응답한 비율임
출처: 여성가족부, 「청소년종합실태조사」

아동^(3~8세)이 주 1회 이상 친구와 노는 비율은 '23년 84.8%이고,
청소년^(13~18세) 중 이야기 상대가 있는 비율은 '23년 83.7%임

- (친구와 노는 비율) 아동^(3~8세)이 주 1회 이상 친구와 노는 비율은 '23년 84.8%로 '18년과 비슷하나, '거의 매일'은 '18년 31.4%에서 '23년 47.7%로 증가^(보고서 86쪽)
- '거의 놀지 않는다'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는 8.0%, 한부모 및 조손가구는 5.3%로 평균(3.6%)보다 높음

< 친구와 자주 노는 비율 (2023) >



주: 1) (3~8세 대상)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횟수에 대해 주 양육자가 응답한 비율임
2) 저소득가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0~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임
출처: 보건복지부, 「아동종합실태조사」

- (이야기 상대) 청소년^(13~18세) 중 “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”는 비율은 '19년 90.1%에서 '21년 84.2%, '23년 83.7%로 감소 추세^(보고서 86쪽)
- 여자 청소년은 '23년 86.0%로 남자 청소년(81.5%)보다 4.5%p 높음

< 성별 이야기 상대가 있는 사람의 비율 (2013~2023) >



주: (13~18세 대상) “낙심하거나 우울하여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있다”고 응답한 비율임
출처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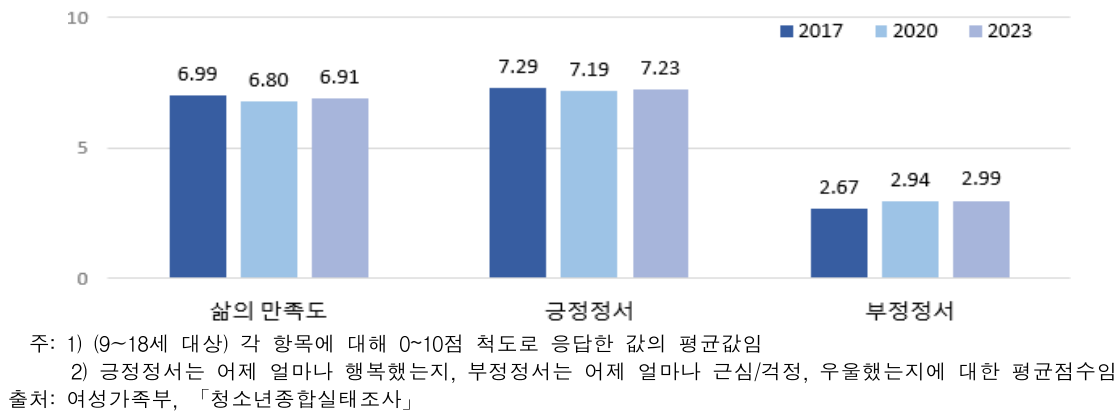
8. 주관적 웰빙

아동·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'20년 대비 '23년 소폭 개선

- 아동·청소년^(9~18세)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'20년 대비 '23년 개선^(보고서 91~93쪽)
-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'20년 6.80점에서 '23년 6.91점, 긍정정서(행복)는 '20년 7.19점에서 '23년 7.23점으로 상승했으나, 모두 '17년에 비해 낮음
 - 반면, 부정정서(걱정/근심, 우울)는 '17년 2.67점에서 '23년 2.99점으로 증가

< 주관적 웰빙 (2017, 2020, 2023) >

(단위: 점/10점)



- 우리나라 청소년^(15세)의 삶의 만족도(65%)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임^(보고서 91쪽)

<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(2022) >

(단위: %)

